

해설자용

미사 없는 공동체 전례
기도와 묵상 (다해, 7월)

천주교 마산교구

연중 제 14주일

입당 해설

해 설 자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일흔두 제자를 세상 속으로 파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평화와 복을 빌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으로 파견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이 예절을 정성껏 봉헌합시다.

시작 성가 : 장

본 기 도

†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종과 굴욕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 66, 10-14ㄷ

화 답 송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나이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룩한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다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시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6, 14-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0, 1-12. 17-20 <또는 10, 1-9>

오늘의 묵상

성경에서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72제자를 지명하고 자신이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파견했다고 전합니다. 왜 하필이면 72제자였을까요? 72라는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0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세상에 퍼지게 된 민족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72입니다. 여기서 72민족이 의미하는 바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12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지파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입니다. 1년은 12달로 이루어져 있고 낮과 밤에는 각각 12시간이 존재합니다. 또 천상예루살렘의 벽도 모두 12개입니다. 이처럼 12는 우주적 완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주적인 완벽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12라는 숫자의 절반인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2x6 즉 72라는 숫자는 지상적인 완벽을 의미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2제자들을 파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곳으로 제자들을 파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이를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72라는 숫자를 통해 드러나며 이제 복음의 선포는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뜻대로 기쁜 소식을 세상 곳곳에 전해야 합니다.

봉헌 성가 : 장

마침 기도

† 하느님 아버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하느님,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할 줄 알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마침 성가 : 장

연중 제15주일

입당 해설

해 설 자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지 생각하면서 예절을 정성껏 봉헌합시다.

시작 성가 : 장

본 기 도

†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보이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이름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신명기 30, 10-14

화 답 송

-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

-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
- ◎ 가난한 이들과,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1, 15-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0, 25-37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배시기에 본토에 남아 있던 유대인 가운데 이민족과 결혼해서 태어나게 된 혈통과 종교가 혼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천대를 받던 사람이 오히려 강도당한 유대인을 구해주었다는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즉 사랑해야 할 기준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가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영내키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고소한 마음부터 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니깐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주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남의 도움도 필요할 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사랑의 대상에 꼭 선을 그어놓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누가 이웃인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이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봉헌 성가 : 장

마침 기도

†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이 메마르듯이 사랑이 없는 저희의 마음도 갈수록 메말라 갈라지고 나뉘어져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웃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저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마침 성가 : 장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입당 해설

해설자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며, 15주기를 맞는 농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에게 좋은 몫을 선택했다며 그 몫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들을 기억하며 전례를 봉헌합니다.

시작 성가 : 장

본기도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저희가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덕을 더욱 열심히 쌓아 가며,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창세기 18, 1-10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 수 있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1, 24-2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0, 38-42

오늘의 묵상

+ 찬미예수님

풍요 속의 빈곤과 빈곤 속의 풍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풍요롭습니다. 성체조배, 이런 저런 기도회, 성령 세미나, 레지오 등 수많은 신심단체와 또한 여러 활동 단체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 줍니다. 그러데 오히려 그 수많은 단체 때문에 빈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심단체에도 활동단체에도 예수님은 쏙 빠져 있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거기 비해, 오직 성경만을 외치며 성경만이 하느님께 다다른 길이라고 강조하는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 별 다른 것 없이 그 성경만으로 풍요롭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많은 것이 꼭 들어차서 오히려 예수님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일도, 너무 많은 것들(물질, 명예, 권력)에 혼이 팔려 정작 내 삶의 지침이요 버팀이 되어야 할 예수님 자리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잘 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먼저 예수님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 자리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혹 너무 많은 것들로 이미 다 차버린 내 삶에 예수님 자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그분 자리를 마련하고 그분과 잠시라도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봉헌 성가 : 장

마침 기도

†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 주시어 당신 말씀으로 당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저희들의 삶은 세상일에 더 몰두하고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오늘 들은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삶으로 실천하여 구원에 합당한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 아멘.

마침 성가 : 장

연중 제17주일

입당 해설

해 설 자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즐겨 바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이루는 자녀다운 친밀함 속에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바쳐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은총을 간절히 청하면서, 예절을 봉헌합니다.

시작 성가 : 장

본 기도

† 저희 희망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느님, 주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의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고 이끄시어, 저희가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지금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창세기 18, 20-32

화답송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

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나이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2, 12-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1, 1-13

오늘의 묵상

+ 찬미예수님

어디선가 본 글입니다.

언젠가 스 대학 ‘해우소’ 벽에 쓰인 낙서가 눈에 띄었다. 그냥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스티커가 한 장 붙어 있었는데, 그 스티커에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해요!” 라는 글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아마 그 대학 기독교학생회에서 붙인 스티커였을 터이다. 그런데 그 스티커 옆에 그보다 더 큰 낙서가 스티커 문구와 대거리하듯 쓰여 있었다.

“뭘 어떡해.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 달리렴!”

사랑하는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말과 행동, 기도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인내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가난과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어주는 것으로. 내가 먼저 다가서서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기도’ 를 삶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미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바램들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봉헌 성가 : 장

마침 기도

† 언제나 부족한 저희를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저희가 참 신앙의 길로 가도록 저희 주변의 이웃들에게 마음의 문을 더
열고 다가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마침 성가 : 장

농민을 위한 기도

○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을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 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 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